

(1) 인문 분야의 글 읽기_나는 누구인가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의 세 가지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는 위의 세 가지 질문이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 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학문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보다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와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탈레스란 철학자가 천체를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약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케변론자에 의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로나 철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

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먼저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內省)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 흄은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의 웅달샘 속에 들어 있는 ㉧(이)란 조약돌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룟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1. 이 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가설을 세우고 증명한 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다.
- ③ 유추의 방법을 활용한다.
- ④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한다.
- ⑤ 흥미 있는 일화를 제시한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가 누구인지 철학적으로 연구하기는 쉽지 않다.
- ② 인간의 본질을 안다고 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
- ③ ‘나’의 생각을 거치지 않으면 우주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 ④ ‘칸트’는 인간이 무엇인가 밝히는 것을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
- ⑤ 인류가 자신보다 먼저 자연이나 우주를 탐구한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단면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3. 이 글에 등장한 철학자 중 연구했던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칸트
- ② 소크라테스
- ③ 탈레스
- ④ 흄
- ⑤ 사르트르

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서로 절충하고 있다.
- ③ 유사한 개념을 다른 대상에 견주어 구분하고 있다.
- ④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5. 문맥상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① | 경험 | 자신 |
| ② | 의식 | '나' |
| ③ | 내성 | 우리 |
| ④ | 자신 | 마음 |
| ⑤ | '나' | 경험 |

6. 문맥을 고려하여 ㉢의 이유를 쓰시오.

7. <보기>에서 ㉣와 가장 의미가 유사한 시어는?

<보기>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① 주머니
- ② 돌담
- ③ 쇠문
- ④ 하늘
- ⑤ 잃은 것

8. 문맥상 ㉦~㉨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집중(集中)하였다
- ② ㉧ : 직면(直面)했다고
- ③ ㉨ : 규명(糾明)되지
- ④ ㉩ : 용이(容易)한
- ⑤ ㉪ : 간주(看做)하였다

[9~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Buber, Martin)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㉔‘너’와의 관계에 있는 ㉕‘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그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적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때 A와 아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며,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㉖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9.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④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이론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10.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바뀌는 존재이다.
- ② 직장 동료를 통해 진정한 ‘나’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 ③ 인간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 ④ ‘나’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 ⑤ 대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11. 이 글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동격이 될 수 없다.
- ② ‘나’와 객체의 관계를 이룬다.
- ③ ‘나’와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다.
- ④ ‘나’에게 돈, 집 등 삼인칭으로 표현된다.
- ⑤ ‘나’의 입장에서 다른 대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12. '나'에 대한 지식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인간에 대한 지식과 차원이 다르다.
- ②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지식이다.
- ③ 좁은 의미로 볼 때 '지식'이 될 수 없다.
- ④ '너'와의 관계 속에서는 형성되기 어렵다.
- ⑤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13. ㉠에 대한 답을 지문의 구절을 활용하여 쓰시오.

1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대등 관계이다.
- ② ㉠은 ㉡를 인격 전체로 대한다.
- ③ ㉠과 ㉡는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 ④ ㉠과 ㉡는 서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 ⑤ ㉠에게 ㉡는 과거에 '그것'으로 존재했다.

15. ㉠과 부합하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장난명(孤掌難鳴)
- ② 간담상조(肝膽相照)
- ③ 순망치한(脣亡齒寒)
- ④ 불구대천(不俱戴天)
- ⑤ 방약무인(傍若無人)

16. 이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나'가 '그것'과 진정한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군.
- ②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가 아직 '그것'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③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는 '그'가 비로소 '나'에게 '너'가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④ '나의 이 빛깔과 향기'는 '나'가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나'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반응이라 할 수 있군.
- ⑤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것은 '나'가 상대방과 진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가 상대방에게 '그것'이 아닌 '너'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겠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예술적 주제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 칼로는 평생 자신을 그리는데 모든 열과 성을 바쳤고, 스스로를 모델로 삼아 끊임없이 관찰하고 표현했다. 자신이 자신에게 영감을 받는 예술가이자 모델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칼로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린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도 자주 외롭고 또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이다.”

프리다 칼로는 진정 외로운 예술가였다. 칼로가 자신을 남과 다른 사람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여섯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면서부터이다. 다른 아이들에게 '나무다리 프리다'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일찍부터 자신의 소외된 상(像)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남다른 총명함으로 의사가 되길 희망했고,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소녀로 자랐다. ㉠그러다 열여덟 살이 되던 해 더 큰 사고를 당한다. 타고 가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해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죽을 때까지 그녀를 괴롭힌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마음까지 심하게 부식시켰다.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칼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 남다른 실존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런 신체적인 한계만을 표현하고자 칼로가 자화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것은 아니다. 그녀는 강하고 열정적인 인간이었으며,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칼로는 멕시코가 낳은 미술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지만 디에고는 칼로와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여자들을 만났다. 칼로는 디에고에 대한 분노보다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곤 했다. 결국 그녀는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칼로의 자화상은 치열한 에너지와 뜨거운 사랑 그리고 통렬한 아픔으로 한 시대를 산, 한 여인의 숭고하고도 감동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던 칼로,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7. 이 글의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가의 고달픈 삶과 비애
- ②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 ③ 인간의 근원적 고통과 그 해소 방안
- ④ 현대인의 불안 의식과 자아 분열의 양상
- ⑤ 부정적 시대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자기 성찰

18. 이 글에서 '프리다 칼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를 쓰시오.

19. 다음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부상당한 사슴'이다. 이 글을 참고하여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의 예술적 주제를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군.
- ②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한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창작 과정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노력했겠군.
- ④ 사슴의 뿔을 예리하게 그려 남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군.
- ⑤ 몸에 박힌 화살들 중의 일부는 자신을 괴롭힌 육체적 고통이겠군.

20. ㉠과 부합하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옆지른 물.
- ② 앞친 데 뒷친다.
- ③ 대문 밖이 저승이라.
- ④ 번개가 잦으면 천둥을 한다.
- ⑤ 저 팽이가 돌면 이 팽이도 돈다.

형성 평가

1. ① 2. ⑤ 3. ③ 4. ① 5. ② 6. '나'를 통해 야만 자연, 우주, 신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⑤ 8. ② 9. ② 10. ② 11. ③ 12. ④
13.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 곧 '그것'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수 있다. 14. ⑤ 15. ①
16. ④ 17. ② 18.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19. ④ 20. ②

1. '~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달리는 기차 ~ 알 수 없다.'에서 유추의 방법을, '소크라테스' 등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예로 들고 있는 것에서 권위자의 견해 인용을, '탈레스'에 대한 일화에서 흥미 있는 일화 제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다.

2. 인류가 자신보다 먼저 자연이나 우주를 탐구한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단면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가 가장 사적인 대상이라 탐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칸트'나 '소크라테스', '흄', '샤르트르'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반면, 탈레스는 인간의 문제보다는 천체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기원전 5세기가 되어서야 철학자들이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 것과, 기원전 6세기 철학자인 '탈레스'가 천체를 연구하려고 하늘만 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일화가 제시된 것에서 알 수 있다.

4. [A]에서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어떤 대상을 주로 연구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6세기에는 자연 현상이나 우주, 신 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5. '샤르트르'는 내성의 방법으로는 '의식'의 웅달샘 속에 들어 있는 '나'라는 조각들을 찾을 수 없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즉 내성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경험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6. 글쓴이는 모든 지식이 '나'의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나'가 의미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7. '읽은 것'이 지시하는 대상은 담 저쪽에 남아 있는 나로서 화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이므로, 지문에서 내성을 통해 찾하고자 하는 본질로서의 '나'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8. '그치다'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다.'의 뜻으로, '정면으로 맞닥뜨리다.'라는 뜻의 '직면'과는 거리가 있다.

9. 회사원 A가 회사 동료들과 업무적 관계를 맺을 때의 관계와 자신의 아이와 맺고 있는 관계를 예로 들며, '나'가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그때의 '나'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설명하고 있다.

10.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나'가 직장 동료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를 통해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다.

11.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라고 한 것을 통해, '그것'은 '나'와 일부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나'와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나'와 '너'는 동격 관계이고, '나'는 '너'와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나'가 될 수 있으므로,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글쓴이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면서, '나'가 가질 수 있는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를 알기 위해서라면 '나'와 관계를 맺는 '너',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다.

14. '나'에게 '너'가 이전에 '그것'이었다가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너'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처음부터 '너'가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㉔에게 ㉓가 과거에 '그것'으로 존재했다는 일반화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상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16. ‘나의 이 빛깔과 향기’는 ‘나’가 지닌 속성으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나’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반응으로 볼 수 없다.

17. 이 글은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가 어릴 때부터 겪은 육체적 고통과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모습과 실존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며 극복하려 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은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가장 적절하다.

18. ‘결국 그녀는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라는 내용에서 ‘프리다 칼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19. ‘칼로’는 ‘디에고’에 대한 분노보다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 했으므로, 사슴의 뿔을 예리하게 그려 남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0. ‘칼로’가 여섯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나무다리 프리다’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열여덟 살이 되던 해 더 큰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으므로, 어렵거나 불행한 일이 겹쳐 일어난다는 뜻의 ‘얹친 데 얹친다.’가 가장 적절하다. ③ 대문 밖이 저승이라. - 사랑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④ 번개가 잦으면 천둥을 한다. - 징조가 잦으면 일이 생긴다. ⑤ 저 팽이가 돌면 이 팽이도 돈다. - 물가 시세 따위가 저편 사정이 변하면 이편 사정도 변한다는 말.